

喚鶴堂 曹汝謙의 交遊詩 研究*

조 희 창**

<目次>

- | | |
|----------------|--------------------|
| I. 序論 | IV. 曹汝謙의 詩의 傾向과 特徵 |
| II. 樓亭文化和 三峰書舍 | V. 結論 |
| III. 曹汝謙과 交遊詩 | |

<국문 초록>

喚鶴堂 曹汝謙은 1518년(中宗 13년, 戊寅)에 태어나고 1594년(宣祖 27년, 甲午) 77세에卒한 호남의 대유학자이며 시인이었다. 字는 常仲 또는 誠仲이며 호는 喚鶴으로 自號한 것이다. 그는 號처럼 학과같이 살다 간 전형적인 선비였다.

중종, 穆陵盛世의 호남시단에서 송순, 임억령 등과 같은 시대에 살면서 그들과 詩友로서 교유하고 선비정신을 견지하면서 處士로 청정한 일생을 보냈던 환학당 조여심에 대한 조명은 아직껏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의 「行狀」을 쓴 서파 오도일이 “聲韻이 淸絶하고 色澤이 朗潤하여 근세의 문필가가 미칠 바 아니었다.”는 詩評을 하였고 그의 정자인 환학정의 騷客들 중 문장의 출중함에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며 오랜 세월동안 일대에 ‘鶴仙’으로 전설처럼 불리고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정비된 문집이나 연구 자료가 일천 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B5A07038864)

** 성신여자대학교 / hichang47@hanmail.net

그의 많은 전적들이 선조들의 遺文과 함께 書庫에 불이나 소실된 이유 때문에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였다. 다행히 그의 정자인 환학정 편액들과, 흩어진 遺文들을 모아 후손들이 편집한 유일한 작품집인 『喚鶴堂遺稿』가 있고, 당시 환학정을 중심으로 교유했던 林億齡, 蘇世讓, 高敬命, 奇大升, 鄭澈 등의 문집에 자료가 다소 散在되어 있으며, 창평 鄉校 등에 그의 行錄이 남아있어 이를 취합하여 환학당 조여심을 세상에 알리게 된 것이다.

조여심은 종형인 觀水亭 曹汝忠과는 翫水亭을 共遊하면서 우애가 각별하였고, 종매형인 양곡 소세양은 그의 資稟을 각별히 자애하였다. 특히 指呼之間에 위치한 ‘息影亭’의 石川 林億齡과는 깊은 친교를 유지하며 그의 사상과 문학을 수렴하였다. 조여심의 시풍이 만년의 석천시와 닮아있음은 그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석천은 무려 20여수의 山居詩를 조여심에게 주었다. 그의 문집 『환학당유고』에는 환학정 「原韻」을 비롯한 수편의 교유시가 수록되어 있어 교유작가들의 문집에 남아있는 시들을 함께 취합하여 분석 자료로 삼았다. 삶의 志向이 陶淵明, 석만경, 엄자릉 등을 추종하였으며, 작품 전반에 흐르는 시의 성향은 守拙하고 平易하며 과장하지 않는 자연주의적 특징이 있다. 그의 律詩에서는 禪 사상과 道家思想의 여운이 감지되며 그의 山居詩 전반에서 느껴지는 것은 현실세계가 그의 포부를 수용해주지 못하는 屈原의 비애를 느낄 수 있고, 이를 엄자릉과 석만경과 같은 隱者的 삶과 도가사상에 기대어 독자적으로 아픔을 극복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가 중건했던 三峰書塾[學求堂]를 통하여 교육에 끼친 업적과 당시 지방 私學 기관으로의 기능과 배출된 인사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16세기 호남 문단의 方外作家로 남아 있었던 조여심을 조명함으로써 그의 작품세계와 그를 통한 交遊詩人 간의 인간관계와 시 성향, 문화 풍토 등이 점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주제어】 喚鶴堂, 宋純, 鄭澈, 林億齡, 奇大升, 蘇世讓, 高敬命, 吳道一

I. 序論

1. 出系와 師承관계

환학당 曹汝諶은 1518년(중종 13, 戊寅)에 태어나고 1594년(선조 27) 77세에卒한 호남의 유학자이며 시인이다. 字는 常仲 또는 誠仲이며, 호는 喚鶴이다. 그의 당호인 喚鶴堂을 이름과 함께 錯綜하여 쓰고 있다.¹⁾ 그러나 명성에 비하여 그의 學問體系나 사상, 문학 등 어느 것도 체계적으로 연구된 실적이 전무하다. 풍진을 겪고 서고에 불이나 자료가 소략하기 때문이다.

환학당 曹汝諶의 出系는 다음과 같다. 그의 고조인 曹大運이 고려 말 시중으로 山狂이라 자호하고 不事二君의 충절로 杜門洞 제현과 함께 焚死하였고, 증조 曹由道는 麗末 恭讓王조에 밀직사 直提學으로 圃隱이 피살되자 伸救의 소를 올리다가 昌平으로 귀양을 오게 되었으며²⁾ 이후로 부터 후손들의 세장지가 되었다. 由道의 아들 秀文은 덕을 숨기고 벼슬을 하지 않아 문장과 道學으로 세상에서 竹林先生이라 불렀는데 점필재로부터 호남의 眞儒로 허여를 받았으며³⁾ 이후 湖南 유학을 선도하여 士林에서 享祀하였다. 조수문 이전의 선조들은 고려유신으로 충절을 지켜 살았고, 世祖 때에야 조수문이 조선조의 문호에 가담하였다. 조수문

-
- 1) 曹汝諶의 호는 喚鶴이며 당호는 喚鶴堂이다. 그의 정자는 喚鶴亭과 翫水亭이다. 그의 「行錄」에서는 ‘喚鶴堂’으로 호칭되고 그와 交遊한 명사들의 集錄에는 ‘曹上舍(進士)’로 표기되어 있다. 본고는 그의 이름과 堂號를 착중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 2) 曹汝諶, 『喚鶴堂遺稿』(夫盛印刷社), 「直提學曹公 由道伸救圃隱先生疏略」, “曹由道, 痛圃隱鄭夢周被誣 述懷詩, ‘傳學程朱道 扶綱伯叔心 吾東千載後 遺史孰能禁’”
 - 3) 『喚鶴堂遺稿』, 「竹林 曹先生秀文行狀」(朴新克), p.350, “聞畢齋金先生之道學冠於東方 往候其門 金先生與語 大悅以湖南眞儒許之.”

은 估畢齋 金宗直과 각별한 친분으로 자녀들을 수학시켜 아들 浩[부제학]와 洵은 估畢齋의 문인이다.

수문의 4남인 洵은 건원 능참봉으로 두 아들을 두었는데 장남인 汝誠과 차남인 환학당 曹汝謹이다. 조여심은 趙光祖로 이어지는 학통을 따라 백형 汝誠과 함께 聽松 성수침의 문인으로 修學하였는데 1546년 丙午년에 두 형제가 生員試에 聯壁하였다.⁴⁾ 훗날 스승 聽松은 환학당에게 ‘淸芬’⁵⁾이라 하여하였으며, 종형 汝忠도 청송과 도의로 교제하였고 그의 三男 國卿도 청송 문하에서 배우게 하였으니 창녕조문과는 각별한 인연이었다. 환학당은 청송으로부터 安貧樂道와 自然一如의 도가적 삶을 천착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조여심이 石川 林億齡과 각별한 관계를 맺은 것도 스승인 청송과 석천의 유별했던 인연에서 출발한다. 1580년 庚辰年(선조 13)에 태학[泮宮]에서 정암 조광조의 「墓碣碑銘」을 지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의취가 조여심이 창시한 것이었다.⁶⁾

한편 고려조의 유신으로 창평에 降謫된 밀직사 曹由道の 가문은 世祖조에 들어서야 曹秀文이 이조의 문호에 가담한 후 아들 浩가 조정에 나가게 되었다. 수문의 장자 曹浩가 公州牧使로 재직 하던 중 연산군 3년 별똥이 떨어짐을 보고 국가에 재난을 예고하는 상소를 올리다가 柳子光의 무리들에게 배척되어 옥에 갇힌바 되었고, 中宗 병인년에 이르러 安瑒에게 신임을 얻고 전직인 校理로 천거되었으나 南袞 등의 탄핵으로

-
- 4) 『喚鶴堂遺稿』, 「行狀」(吳道一), “公諱汝謹 字常仲 系出昌寧 昌寧之曹 以新羅太師諱繼龍爲上祖 羅麗間世襲大官 有諱大運 麗季侍中 入本朝降 昌平戶長是公高祖考也 曾祖考諱由道 寶文閣直提學 祖考諱秀文 文章道德世號竹林先生 考諱洵 健元陵參奉 妣光山金氏生員光一 女 以正德戊寅生公 嘉靖丙午與伯兄汝誠生員聯壁 娶咸陽朴氏 順陵參奉世榮女”
- 5) 『喚鶴堂遺稿』, 「行狀」(吳道一), p.370, “笑仙成公則曰淸芬”
- 6) 『喚鶴堂遺稿』, 「行狀」(吳道一), “嘉靖間 居泮宮 執耳齋論多 士中或有行之不正者 則輒聲其罪 一無寬假 莫不敬憚 萬曆庚辰 自太學倡 靜菴趙先生墓碣銘之意 實爲公之倡始也”

承文院 判校로 좌천되자 중앙 政治에 대한 회의와 鬱火로 1년 후 68세에 병사하게 된다.⁷⁾

兩大士禍와 이러한 사건들은 그의 아들 汝忠과 조카 汝誠, 汝諶 등에게 정치역정에 심한 회의와 좌절을 가져와 이에 出仕를 포기하고 향리인 창평에서 觀水亭, 喚鶴亭 등의 정자를 짓고 林泉에서 讀書求志 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조여심의 풍모와 喚鶴亭에 대한 기록은 西坡 吳道一이撰한 「行狀」에서 확인할 수 있다.⁸⁾

조수문이 조선 유학자로 ‘斥佛論者’임에 비추어 환학당은 儒·佛과 道家思想을 두루 수용하여 ‘儒禪不二’와 ‘自然一如’의 삶을 살았음을 여러 정황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또 「行狀」은 “일찍이 陶淵明⁹⁾과 石曼卿¹⁰⁾의 삶을 사랑하여 줄이 없는 거문고와 눈 속의 당나귀 그림을 벽에 걸어놓고 병풍에 그려서 항상 옛날의 아득한 감회를 느끼게 하였으며 평생을 狂簡¹¹⁾으로 自許하며 벼슬에 뜻이 없이 강호를 유랑하고 항상 嚴子陵¹²⁾

7) 『昌寧曹氏 密直使公派譜』(竹林齋, 2008.), 「雲谷 曹先生諱浩 行狀」(朴新克), p.357.

8) 『喚鶴堂遺稿』, 「行狀」(吳道一), “鳴陽縣南 瑞石山下 有喚學堂 古上舍曹公遺庄也. 入其洞 洞府寬幽 峯巒秀拔 水石清奇 昇其堂 胸次爽豁 心懷灑落 有去神仙不遠底意 概見公之平生所尚也.. 公儀形清秀 心志冲澹 挺然若玉樹臨風 澹然 如古井無波 迥出物表 常有唯世之意 故扁其堂 曰喚鶴”

9) 陶淵明: 중국 東晉말기 부터 南朝의 宋代초기에 걸쳐 생존한 중국의 대표적 시인. 기교를 부리지 않고, 平淡한 시풍으로 唐代 이후는 六朝 최고의 시인으로서 그 이름이 높아졌다. 그의 시풍은 唐代의 孟浩然, 王維, 儲光羲 등 많은 시인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주요 작품으로 「五柳先生傳」, 「桃花源記」, 「歸去來辭」 등이 있다. 조여심의 삶의 바탕과 平淡한 시풍은 도연명을 추종한 것이다.

10) 石曼卿: 北宋 宋城 사람. 자는 曼卿 또는 安仁이다. 여러 차례 進士試를 보았지만 합격하지 못했다. 眞宗 때 右班殿直에서 太常寺太祝으로 옮겼고, 金鄉知縣을 역임했는데, 정치를 잘 해 이름을 날리기도 했다. 술을 좋아하여 황제의 節酒 명령을 받고 얼마 후 44세로 사망하였다. 저작으로 『石曼卿詩集』 1권이 있으며, 이 밖에 『捫蝨庵長短句』가 있었지만 전해오지 않고 『全宋詞』에 詞 2수가 실려 있을 뿐이다. 조여심은 그의 호방함을 좋아하였다.

11) 『喚鶴堂遺稿』, 「行狀」(吳道一), “嘗愛陶淵明石曼卿爲人 無弦琴雪中驢 掛於壁

으로 自比 하면서 1594년 선조 27년에 사거하였다. 丁酉 再亂時 형 汝誠의 아들 將仕郎 邦祐¹³⁾가 의병장으로 康津灣에 가서 싸워 여러 전적을 남겼으나 전사하여 손이 끊기자 장남 光績의 큰 아들인 병조참의 大洋이 방우 앞으로 출계하여 代를 이었다. 그는 평생을 처사로의 삶을 살면서도 憂國一念이 있었고 사후에도 兄에 대한 友愛를 지켰다.

죽림사는 曹秀文, 曹浩 부자와 5세손 曹溥 및 죽림사를 창시한 簫隱 鄭敏河를 향사한 곳인데 2006년 죽림사의 移安에 기하여 조여심이 조광조의 「墓碣碑銘」에 대한 찬의를 하였고 일점의 塵埃가 없이 物外에 초연한 삶을 추모하여 追配하였다.¹⁴⁾

2. 조여심과 處士文學

조선 전기의 문학은 사대부 문학의 시대로서 기본성격은 관료적 문학

畫於屏 常有曠感千古之意 性不嗜飲 甚愛酒 或飲一勺 微醺便止 醺必高吟 音韻滿堂 每值光風霽月之霄 則多會親朋酬唱不已 又好遊覽 春秋之節 匹驢隻童 周遊名山大川 平生以狂簡”

『論語』, 「公治長」 21, “子在陳曰 歸與 歸與 吾黨之小子狂簡 斐然成章 不知所以裁之” (“狂簡”이란 단어는 『論語』와 『孟子』에 통틀어 두 번 나오는데 『論語』, 「公治長」편에서 한 번 나오고, 『孟子』, 「盡心」下에서 “吾黨之士 狂簡”이라는 형태로 한 번 나온다. 狂簡은 ‘뜻하는 바는 크나 실천함이 없이 소홀하고 거침’으로 풀이되어 있으며 이는 조선조 6백년 역사를 지배한 성리학 적 해석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조여심 또한 스스로 狂簡之士라 한 것은 이상은 크나 실천할 수 없는 현실을 자조하며 自許하였다고 할 것이다.)

- 12) 嚴子陵[嚴陵]: 이름은 嚴光. 字가 子陵이니 줄여서 嚴陵이라고도 불린다. 後漢 光武帝 劉秀의 竹馬故友이다. 光武帝가 王莽의 新나라를 제압하고 제위에 오르자 부춘산으로 들어가 숨어 살며 낚시로 일생을 마쳤다.[嚴陵釣臺] 李白은 그의 시 「古風」에서 엄자릉의 無慾과 隱者的 삶을 칭송하였고, 조여심의 삶에도 영향을 주었다.
- 13) 『昌寧曹氏 密直使公派譜』, “諱는 邦祐. 字는 輔賢. 號는 仙鶴이다. 將仕郎으로 의병을 모아 康津灣에서 싸워 戰功을 남겼으나 단신으로 중가 부족하여 전사하였다. 추후 持平으로 증직하고 후손이 사당을 지어 향사하였다.”
- 14) 『昌寧曹氏 密直使公派譜』, 「仙鶴曹公諱邦祐墓碣碑銘」(李炳珪).

과 처사 문학으로 나눈다. 그들은 공히 문학은 도를 밝히는 것이라 인식하고 鄭道傳의 ‘載道之器’의 문학론을 추종하였는데 文은 道를 담는 것 즉 ‘道文一致’의 관념이었다.¹⁵⁾

成宗조에 이르러 士林派 성리학자들이 대거 등용되었는데 특히 李珣 등 道學者들이 추구한 美意識은 繪飾을 일삼지 않고, 자연스러운 가운데 妙趣가 있는 ‘沖澹蕭散’이었다.¹⁶⁾

조선 중기에 들어서도 처음에는 초기와 같은 상황이 이어져 오다가 成宗 中宗조를 거쳐 오면서 宋詩 문학이 퇴조하고 海東江西詩派類인 湖陰 鄭士龍, 蘇齋 盧守愼, 芝川 黃廷彧 등의 ‘湖蘇芝’에 의하여 唐詩 운동이 일어나고 穆陵시대에는 三唐派인 李達, 崔慶昌, 白光勳 등에 의하여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¹⁷⁾

호남 시단에서도 朴祥을 선도로 하여 林億齡, 白光勳, 林悌, 高敬命, 崔慶昌 등에 의하여 唐風의 진원지가 되었다.

조여심의 詩文 창작은 林億齡이 담양부사 취임 2년 후 星山에 歸依하여 소쇄원의 주인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집중되었다. 당시 환학당은 스승이었던 成守琛의 安貧樂道한 처사로의 삶을 천착하고 그와 유별한 임억령의 潭陽 귀환에 따라 그와의 교분을 쌓을 수 있었고 忘年之交를 유지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文科 장원에 뽑히고, 장래가 촉망되던 고경명은 환학정과 昌平의 명소인 甌巖川, 桐江釣臺 등에서 조여심과 逍遙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조여심의 시 전반은 석천시의 구성과 지향성이 닮아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조여심의 시문은 환학정 原韻의 7언 律詩와 증암천에서 高敬命,

-
- 15) 임형택, 「16세기 士林派의 文學意識」, 『韓國 文學史의 視覺』, 創作과 批評社, 1984, p.34.
 16) 임형택, 「李朝 前期의 士大夫 文學」, 『韓國文學史의 視覺』, 創作과 批評社, 1984. pp.359-360.
 17) 曹喜昌, 「蘇齋 盧守愼의 詩文學」, 『漢文古典研究』 第16集, 한국한문고전학회, 2008, p.113.

鄭祥叟, 金成遠 등과 함께 한 5언 율시를 제외하고는 다수가 5언 絶句이다. 그들의 활동무대가 指呼之間에 위치한 계산동의 息影亭과 삼청동의 喚鶴亭이었음에 비추어 시의 창작무대가 같다는 것 외에도 석천의 삶과 경륜을 배우면서 시의 大家인 그의 시세계에 同化되거나 영향을 받았으리라 생각된다. 석천 사거 후 그는 스스로를 狂簡으로 자처하고 좌상에 桐廬라는 호를 걸고 병풍에 줄 없는 거문고를 그려서 친고에 광활한 뜻을 거기에다 붙이고 평생을 살다간 것이다.

3. 研究 目的과 방법

본고는 환학당 조여심과 交遊詩人들과의 시세계를 觀照하고 활동상황에 연관된 樓亭文化에 대하여 살피고자 한다.

조여심은 16세기 中宗朝와 穆陵盛世에 호남 昌平에서 비단 出仕하지는 않았지만 학문과 덕행, 선비로서의 資稟이 출중하여 당시 명사였던 임억령, 소세양, 송순, 정철, 기대승, 고경명 등과 詩로 交遊하였으며, 그의 시는 무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騷客들에게 격조 높은 시로 칭송되어왔고 그의 詩評을 쓴 西坡 吳道一도 “聲韻이 낭윤하여 詩의 격조는 근세의 여러 작가가 견주지 못한다.”¹⁸⁾고 평하였음을 볼 때 세상에 드러나야 할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의 명성에 비하여 여러 문헌이 患亂 중 소실되어 조여심의 후손이 집록한 『喚鶴堂遺稿』¹⁹⁾와 그의 정자인 喚鶴亭에 揭額된 수편의 詩文과 교유시인들의 문집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 그의 전부이다 보니 조여심의 인물 전체를 알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疏略하나마 그의 「行狀」²⁰⁾과 문중의 文獻²¹⁾, 창평 鄉校에 남아있는 行錄

18) 『昌寧曹氏 密直使公派譜』, 「行狀」, “今觀堂楣所揭諸篇 聲韻清絕 色澤郎潤 要非近世操觚家所及也.”

19) 『喚鶴堂遺稿』. 1944년 목활자본의 『喚鶴堂逸稿』가 있었는데(광주권 문집해제, 1992.), 1976년(丙辰) 후손들의 작품을 보강하여 전·후편으로 편성하여 『喚鶴堂遺稿』를 발간하였다.

20) 『昌寧曹氏 密直使公派譜』, 「喚鶴曹先生 諱汝謙 行狀」, p.364

등을 취합하고 교유시인들의 문집²²⁾을 통하여 그를 호남의 樓亭作家로 위상을 정립하고 특히 조여심과 임억령의 「山居」시 등을 통하여 당시 소쇄원과 환학정 주변의 風情을 이해하고 창작 배경을 확인하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자료는 『昌寧曹氏 密直使公派譜²³⁾』와 그의 문집인 『喚鶴堂遺稿』 및 『韓國文集叢刊』과 교유시인들의 관련 자료 및 단행본 등을 참조하여 조여심의 시와 당시대 교유했던 명사 詩客들의 시들을 詩 형식에 맞추어 고구해 보려고 한다.

II. 樓亭文化와 三峰書舍

1. 樓亭과 喚鶴堂

우리나라 누정 문화의 최초 기록은 『三國遺事』에 보이는데 “488년 신라 毗處王 즉위 10년(戊辰, 488년) 정월에 天泉亭에 행차하였다”²⁴⁾는 기록이 있고 고려시대 역시 「四輪亭記」, 정서의 「鄭瓜亭曲」 등이 지어졌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樓亭은 儒家의 정신과 결합하여 풍류를 벗하면서 심신을 다스리고 학문과 세상사를 토론하는 대화의 공간으로 자연과 교감하면서 浩然之氣를 기르는 쉼터로 기능하였던 역사적 배경을 확

21) 『昌寧曹氏密直使公派譜』.

22) 林億齡, 『石川集』(『韓國文集叢刊』 27.); 蘇世讓, 『陽谷集』(『韓國文集叢刊』 23.); 奇大升, 『高峰集』(『韓國文集叢刊』 40.); 高敬命, 『霽峰集』(『韓國文集叢刊』 42.); 鄭澈, 『松江集』(『韓國文集叢刊』 46.); 吳道一, 『西坡集』(『韓國文集叢刊』 152.)

23) 『昌寧曹氏密直使公派譜』, 「序文」(李炳珣, p.41.; 「竹林書院 廟庭碑」(邊時淵, p.265.; 「竹林曹先生 諱秀文行狀」(朴新克) p.349.; 「雲谷曹先生 諱浩家狀」(朴新克), p.341.; 「觀水曹公諱汝忠行狀」(奇宇萬), p.357.; 「仙谷曹公諱洵墓碣銘」(李炳珣, p.441.; 「喚鶴堂曹公諱汝諶墓誌銘」(高傳立), p.604.

24) 『三國遺事』 第21, 「毗處王」[一作 炤智王], “即位十年戊辰 幸於天泉亭 時有烏與鼠來鳴 鼠作人語云 此烏去處尋之.”

인 할 수 있다.

潭陽에는 無等山, 秋月山, 金城山 등의 명산과 함께 영산강이 발원하는 아름다운 산수가 있고 樓亭文化가 꽃피었으며, 樓亭을 무대로 펼쳐진 詩歌문학이 발달하였다. 특히 조선시대 중기를 지나면서는 빼어난 歌辭 작품들이 산출되어 우리 문학사의 주목을 크게 받았으며, 담양은 실로 ‘新竹林七賢’²⁵⁾의 고장으로 後學을 기르는 교육과 누정문학을 태동시킨 성지임을 확인 할 수 있다. 16세기에 집중적으로 건립된 이러한 누정들은 시문의 산실로서 크게 기여 하였는데 이러한 누정 건립은 己卯士禍 이후에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 이면에는 士禍와 당쟁으로 인한 士林의 수난이라는 조선시대의 사회적 배경을 안고 있으며 喚鶴亭도 이러한 산물임을 알 수 있다. 조여심 또한 동시대 같은 지역권에 살면서 이러한 누정 문화에 대한 陰陽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곳에서 喚鶴亭과 翫水亭을 짓고 학문 연찬과 詩文을 벗하며 여러 명사들과 교류하였다.

喚鶴亭은 원래 喚鶴 曹汝謚에 의해 남면 학선리 개선동에서 창건된 후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한 차례 복원하였고, 그 후 퇴락한 것을 후손들이 중수하였으나 광주댐 건설로 인해 1974년 갑자년에 芬香里 첫돌머리 朝夕橋변인 현 자리로 移築한 것이다. 棟字와 양사를 舊模新型으로 하고 정자 내에는 喚鶴堂 「原韻」을 비롯하여 명류들의 題詠詩가 14개의 현판으로 揭額되었다.²⁶⁾ 그러나 2015년 乙未년에 시설이 훼손되자 壇을 높이고 새롭게 신축하였다.

25) ① 瀟灑園은 中宗때 瀟灑翁 梁山甫에 의하여 1520~1530년 사이에 조성되었고, ② 息影亭은 1560년(명종 15) 金成遠이 장인 林億齡을 위해 만든 정자이며, ③ 環壁堂은 1540년 沙村 金允悌가 후학 양성을 위해 방이 있는 정자로 만든 것이며, ④ 醉歌亭은 1590년 충장공 金德齡의 후손 난실 김만식에 의해 忠莊公 성장지에 지은 것이다. ⑤ 俛仰亭은 宋純이 낙향하여 후학을 가르치던 정자이며, ⑥ 松江亭은 정철이 대사헌으로 있을 때 동인의 압박으로 하향하여 초막을 짓고 竹線亭이라 한 것을 1770년(영조 46) 다시 지어 松江亭이라 하였으며, ⑦ 鳴玉軒은 光海君 때 吳希道가 외가인 이곳에 설립한 정원이며 현재는 道藏祠라는 현판만 남아있다.

26) 『昌寧曹氏 密直使公派譜』, 「喚鶴亭移建記」(金善駟), p.742.

2. 三峰書舍[學求堂]

영산강 지천인 증암천 골짜기를 빠져 나온 곳에 香積寺라는 麗末의 사찰이 있었는데 이조의 國是인 崇儒斥佛 정책에 의하여 사찰이 폐지되자, 조여심은 흩어진 스님들을 규합하여 모으고 ‘三峰書舍’로 개명하여 강학하였다. 1570년(선조 3) 지역의 25姓氏들이 성력을 모아 ‘學求堂’을 만들었는데 이 모든 과정을 曹汝諶이 선도하였다.²⁷⁾ 대상은 과거시험에 합격하거나 관직을 역임한 명문가 출신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정병으로 입대한 평민들도 섞였다. 후일 그의 제자들이 환학의 뜻을 받들어 학구당이라 이름하였다. 堂員은 안우문을 포함하여 83명이었는데 이곳을 통하여 潭陽은 물론 全羅道에 많은 지식 전달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조여심과 함께 학구당 건립에 참여했던 梁子徽(1523-1594)이 지방 수령으로 나가게 되자 동생 양자정이 당장과 장의를 주관하였다. 수남 학구당은 창평 학구당이라고도 불리며 유교 사회적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한 인재를 양성하던 곳이다.

1570년 창립 당시 教材는 『紫陽集』, 『家禮』, 『19史略』, 『小學』, 『史部』, 『良齋集』을, 그리고 1580년에는 『文選』을, 1581년에는 『中庸』을 구비하였다. 10권 전질의 『자양집』은 주자의 문집인 『朱子大典』을 말한다. 학구당의 교육은 고등교육 수준이며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교육기관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곳에서 鄭澈의 넷째아들 기암 鄭弘溟²⁸⁾(1582-1650) 등

27) 出典: ‘筆巖書院’, 學求堂은 국가 文武政策으로 書院으로 중건하였으나 1619년(光海君 11)에 다시 학구당으로 고쳤으며, 1984년 2월 29일 ‘문화재 자료 12’로 지정되었다.

28) 鄭弘溟은 정철의 넷째아들로 47세에 얻은 晩得子다. 세 아들이 父親의 後光을 못보고 東人의 음해를 받았으나, 그는 늦게 조정에 나가 大提學에 이르고 부친을 伸冤하였으며, 「星山別曲」의 국문체 장편가사를 만들고 『松江集』을 편찬하였다. 정철이 58세에 死去하자 어린 시절 창평 學求堂을 통하여 수학하였으며 이곳을 통하여 배출한 대표 인물인 것이다.

이 배출하기도 하였다. 학구당은 麗末鮮初의 교육을 계승하였지만 16세기 私學의 흥기와 맥을 같이한다. 건국 이후 이때에 官學이 쇠퇴하고 사학이 흥기하게 된다. 私學은 초등수준의 書堂, 중등수준의 學堂이 있는데 교재 수준에서 볼 때 학당수준이다.

Ⅲ. 曹汝謚과 交遊詩

1. 喚鶴亭 原韻

먼저 喚鶴亭 原韻에 대하여 살핀다. 이 詩는 주인인 조여심이 종형인 觀水亭 조여충과 석천 林億齡, 양곡 蘇世讓 등을 환학당에 초대하여 석양을 보면서 수창한 시들이다. 나중에 霽峰 고경명이 스승 임억령의 작품에 次韻하였다. 起聯에는 ‘雲’과 ‘紛’을 頷聯에는 ‘芬’을, 頸聯에는 ‘文’을 尾聯에는 ‘嚙’으로 하여 喚鶴亭에서 바라보는 석양의 風光을 노래한 시들이다.

1) 喚鶴堂 曹汝謚

釋去千年只白雲	석가 떠난 천년 만에 흰 구름만 남았는데
茲區隔絕世紛紛	이 구역 세상 어지러운 일은 격리되었도다
巖傍閒花風自落	바위 곁 한가로운 꽃은 바람에 떨어지고
澗邊幽草雨猶芬	시냇가 깊숙한 풀은 비 맞아 향기롭구나
愛聽鶴唳因編屋	학의 소리를 사랑하여 집의 호를 짓고
時有朋來細討文	때 따라 친한 벗 찾아와 글을 토론하네
間嘗竊念吾家事	저어기 근간의 내 집 일을 생각하네
鬱抱難開坐夕曛	우울한 심회 열기 어려워 저녁 빛에 앉았노라. ²⁹⁾

위 환학당 題詠詩는 崔顥의 시 「黃鶴樓」의 함련 “黃鶴一去不復返 白

29) 曹汝謚, 『喚鶴堂遺稿』, 「喚鶴亭 揭韻, 喚學堂 原韻」, p.1.

雲千載空悠悠”에서 점화된 듯 하며 起句 ‘釋去千年’은 ‘鶴去千年’의 誤字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는 시의 전체 흐름이나 조여심의 학과의 인연을 보더라도 ‘鶴’자가 접근점에 다가선다.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다만 原典이 ‘釋’으로 되어 있으므로 ‘釋’을 논재로 하기로 한다.

이 詩는 환학당의 사상을 피력하고 그가 自號한 환학의 내역을 언급하면서 주변의 풍치와 심회를 읊은 시이다. 起聯에서 언급되는 ‘釋去千年’은 당시 소세양, 임억령 등의 명류들을 초치한 자리에서 유학자로서는 참으로 의외스러운 표현이다. 그러나 당시 환학당은 麗末에 세운 香積寺의 樾철에 따라 흠어진 스님들을 모아 ‘三峰書舍’로 개칭하고 교육의 도량으로 사용하고 있어 불교에 대한 해박한 이론을 갖추고 있었고 그의 학문과 사상체계가 성수침과 임억령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두 사람의 사상에는 莊周의 ‘自然一如’와 ‘儒禪不二’를 수용하고 있었다.

임억령은 200여 수의 불교 관련 시를 지었고 儒者들이 경영하는 세상이 부패하여 佛僧들의 眞佛이 된 것에 부끄러워했다. 임억령의 식영정 복귀 후 조여심과의 교류는 평소 환학당의 기질과 交融되면서 禪사상까지도 임억령으로부터 동화되었음을 알 수 있고 同席의 명사들에게도 이해될 수 있는 詩語였으리라고 본다.

겸하여 환학정은 세상의 어지러운 일과는 격리되는 곳으로 때때로 친한 벗들이 찾아와 글을 논하는 곳임을 강조하고 있다. 頷聯에서는 정자가 있는 바위 곁 꽃들이 바람에 낙화하고, 시냇가 풀들이 향기를 발하고 있어 봄의 절정기임을 알 수 있다. 頸聯에서는 학을 사랑하여 편육에 기르고 환학이라 자호하였음을 밝히고 있으며 尾聯에서는 집안일에 대한 울적한 심회를 나타내고 있다. 禪사상과 道家的 餘韻이 감지된다.

2) 觀水亭 曹汝忠

晶如秋月淡如雲 수정 같은 가을 달 구름과 같이 맑아
 做得澹閒絕俗紛 沖澹閒遠 이루니 샅된 번다함 벗어나도다

積玉何須求善價 구태여 독옥을 좋은 값으로 구하리오
 谷蘭從此掩幽芬 계곡의 난초는 숨어 피어 그윽이 향기롭다
 鶴心淨潔盟新侶 학의 마음 정결하여 새로운 짝과 맹세하며
 松韻疎清讀古文 소나무 맑은 소리로 옛 글을 읽노라.
 歌罷滄浪誰解意 창랑에 노래 소리 그치는 뜻 누가 알리오
 濯纓洲上夕陽曛 강가에 갓을 씻을 제 석양 노을이 지는구나.³⁰⁾

위 詩는 從弟 환학당과, 일찍이 부인과 사별하고 정계에서 은퇴한 후 처가에 들린 매형 양곡과 당시 名詩客인 임석천과 더불어 수창한 시이다.

起聯에서는 밝은 달이 떠올라 샷된 번다함이 물러나며 額聯은 계곡의 난초가 향기를 발하여 정취를 더하고 있다. 頸聯에서는 환학정에 모인 명사들이 학과 같은 정결한 마음으로 옛글을 토론하고 있으며 尾聯에서는 창랑 가에서 갓을 씻는 屈原의 심사를 자기와 대입시키고 있다. 관수정의 삶의 모습은 굴원과 많이 닮아 있음을 볼 수 있다.

관수정 曹汝忠은 1491년(成宗 22, 辛亥)에 弘文館 校理 曹浩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字는 可恕요, 觀水는 堂號다. 출사를 하지 않고 童蒙教官에 머물며 후학들을 가르치고 선비로 살아온 인물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어 지역의 큰 존경을 받고 있었다. 송강 정철은 평소 관수정의 인품을 흠모하여 45세의 연장자인 노선비 조여충에게 2편의 五言絶句를 贈했다.

「觀水亭 贈曹汝忠 二首 : 원수정에서 교관 조여충에게 증하다, 2수」

日夕衣巾重 낮과 밤으로 입은 옷 무거워지고
 前山嵐氣濃 앞산은 아지랑이 더욱 짙고야
 應須康濟酒 모름지기 몸보신하는 좋은 술이라
 手進兩三鐘 손수 두세 잔 올리웁나니.

白知松上鶴 흰 것은 소나무 위의 학이요
 黃見草中牛 누른 것을 보니 풀 뜯는 소로다
 此景無人畫 이 경치 사람 없는 그림이니
 山翁筆下收 산옹께 글 적어 남기려하네.³¹⁾

30) 曹汝謨, 『喚鶴堂遺稿』, 『喚鶴亭 揭額』 5, p.1.

조여심보다 18세 아래인 송강은 평소 고경명과 더불어 환학당과 교유하였음을 조여심의 『喚鶴堂遺稿』, 「行狀」·「墓碣文」 등에서 확인할 수가 있으며 그의 卒年은 조여심과 같은 1594년(선조 27)이었다.

3) 陽谷 蘇世讓

喚學堂深宿白雲	환학당 깊은 곳에 흰 구름자고 가니
九阜清喉離塵紛	구고에 학이 울고 티끌이 사라진다
松花細細窓前落	소나무 가는 꽃가루 창문 앞에 떨어지고
瑤草茸茸潤底芬	아름다운 풀들은 계곡 사이에 향기롭네
世故更無來敗意	세상사 속세의 흥취는 깨어지기도 하는데
可人時與細論文	현자들 때맞추어 시문을 토론하네
石川佳句題應遍	석천은 아름다운 글귀로 시를 쓰고 있는데
不覺沈吟到西夕	나도 몰래 읊조릴 제 저녁 해가 지는구나. ³²⁾

환학정 原韻의 酬唱詩는 당시 명류였던 임석천이 담양부사를 사임하고 환학정에 초대되어 양곡과 동석하였음을 볼 때 석천의 나이 63세인 1558년경이며 양곡의 나이는 72세 전후로 당시 김제 退休堂에서 처가인 昌平에 들러 석천 등과 함께 처남의 정자 환학정의 석양 풍정을 읊은 것이다. 봄의 절정기에 수년 만에 찾아온 처남의 정자에서 담양부사를 은퇴한 당시의 名詩客인 石川과 동석하여 松花가루 날리고 香草 분분한 곳에서 학 울음소리를 벗 삼아 수창하는 감회는 참으로 남다를 것이다.

蘇世讓(1486-1562)의 자는 彦謙, 호는 陽谷·退齋·退休堂·清心子·謙齋·竹西, 본관은 晉州이다. 그는 1509년(중종 4) 식년문과에 급제한 후

31) 鄭澈, 『松江集』, 「翫水亭 贈曹汝忠」 2首, p.217.; 『喚鶴堂遺稿』, 「松江詩」 1·2, p.16.

32) 蘇世讓, 『陽谷集』, 「喚鶴堂 爲曹上舍 汝諶」, p.442.; 『喚鶴堂遺稿』, 「喚鶴亭 揭額」 1, p.2. 『陽谷集』에는 尾聯의 8구가 ‘夕’으로 『喚鶴堂遺稿集』에는 ‘西’로 되어 있음.

정언, 직제학, 전라도 관찰사, 형조판서 등을 거쳐 1537년 형조·호조·병조·이조판서를 역임하고 우찬성에 올랐다.

11545년(인종 원년)에는 大尹계의 탄핵으로 사직하였다가 明宗이 즉위한 뒤 재기용되었으나 곧바로 사직하고 益山에 은퇴하여 退休堂을 짓고 칩거하였다. 1562년(명종 17) 壬寅 11월 22일 우연히 寒疾을 얻어 77세로 사거하였다.

부인 曹氏는 承文院 判校 曹浩의 딸인데, 능히 內範을 지켜 남편을 보필하였으나 양곡보다 먼저卒하였고, 1남 3녀를 낳으니 아들 遂는 淳昌郡守로 능히 가정의 교훈을 지켰다.

장인이었던 曹浩는 양곡에게 말하기를 “孝悌忠信 네 字는 내가 가정에서 받은 것이니 마음에 담아두고 잊어버릴까 두려워하라” 하며 양곡이 말하기를 “가르침을 공경히 받겠다”고 하더니 그 후 지위가 높은 날에 “내가 지금까지 큰 허물을 면한 것은 선생의 교도에 힘입은 바가 많다”³³⁾라고 하였다. 陽谷은 당시 出仕의 한 수단이었던 律詩로 입신한 사람이다.³⁴⁾ 그의 다수의 시들은 그가 政界를 사직한 이후 약 20여년에 걸쳐 지어진 것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4) 石川 林億齡

多君寂寂訪山雲	많은 벗 고요한 산 구름 찾아 왔는데
嗟我棲棲已白紛	오호라 이미 스미어 하얗게 흩어졌구나
但得盤中芝蕨軟	다만 소반에 갖 단 지초와 고사리를 얻었으니
何須身外姓名芬	어찌 향기로운 성명을 따르지 않으리

33) 『昌寧曹氏 密直使公派譜』 卷上, 「雲谷曹先生 諱浩行狀」, p.358, “翊陽谷蘇公曰 ‘孝悌忠信四字 吾受之家庭. 佩服于心. 常恐墜絕古所謂終身行之 儘有餘者也’ 陽谷曰 ‘敬受教焉’ 其後位高之日 常語人曰 ‘吾之至今幸免大過者多先生之教道云矣.’”

34) 『陽谷集』, 「陽谷先生集序」(朴忠元), p.291, “文章 小技也, 若無與於世道之汚隆, 而自韓以環 文章之盛衰 未始不關於世道 夫治世之言 雍容典實 謁然平和 可以驗其道之所隆也 亂世之語 雕靡浮誇 索然萎蕭可以占其道之所由汚也.”

千年瘦鶴俱仙骨 천년 늙은 학은 신선의 골상을 갖추었고
 五鬢疎松盡蘇文 다섯 갈기 성긴 소나무 앞에서 동파의 글을 찾았노라
 醉上藍輿沙路細 취상의 가마 좁은 모래 길로 접어들 제
 孤村杳杳已迎曛 어두워진 외로운 마을에는 이미 해가 지려 하네³⁵⁾

모처럼 政界와 詞章派의 거물인 양곡이 말년에 처가에 들러 평소 통래가 잦은 환학정에서 酬唱한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두 사람은 서로의 文才를 잘 알고 아끼고 있다. 또 觀水亭, 喚鶴堂 두 선비의 文章 또한 비범하다. 화창한 봄날 저녁 산 구름은 하얗게 흩어졌는데 갓 따온 지초와 고사리가 소반에 향기를 발하고 있다. 환학정의 玄學을 보고 신선의 형상을 느끼고 삼청계곡 오렵송 성긴 모습에서 蘇東坡의 문장을 영감한다. 석천다운 발상이다. 詩人은 物像을 통하여 시상을 찾고 書藝家는 자연의 형상에서 書體를 발견한다. 尾聯은 취한 가마가 석양이 되어 모래길 접어들 제 해가 지는 모습으로 시상을 마무리 하고 있다.

5) 霽峰 高敬命

杖藜徐步度溪雲 명아주 지팡이로 구름 개울 건너오니
 小雨輕陰未解紛 가랑비 어스름하여 심사 어지러워라
 山翠細沾苔逕滑 푸른 산 조금씩 적셔져 이끼 길 미끄럽고
 水風微動露荷芬 물가에 바람 이니 이슬 맞아 연꽃 향기롭다
 酒斟楠屨兼賢聖 녹나무 술잔은 청주 탁주잔을 겸하였고
 火宿丹爐候武文 붉은 화롯불은 후무의 문장이로다.
 松鶴一聲驚醉夢 소나무 위 학 울음에 취한 꿈이 놀라는데
 數家籬落帶西曛 몇몇 집 울타리에 저녁 해가 걸려있네.³⁶⁾

위 詩는 재봉이 스승인 석천의 시 「환학정」 原韻에 次韻한 것이다. 명아주 지팡이를 짚고 비가 내리고 구름이 낀 개울 길을 건너오고 있다.

35) 『喚鶴堂遺稿』, 『喚鶴亭 揭額』 2, p.3.

36) 『喚鶴堂遺稿』, 『喚鶴亭 揭額』 3, p.3.

바람이 이는 물가에는 비 맞은 연꽃이 향기를 발하고 있어 절기는 6월 초 여름쯤이다. 환학정에 도달하여 녹나무로 만든 술잔으로 탁주를 대접받고 있다. 이백의 詩에서 “옛날의 청주는 聖人과 같고 濁酒는 현인과 같다”³⁷⁾라 하였는데 李白의 「勸酒歌」에서 용사 한듯하다. 淸·濁酒잔을 녹나무 잔으로 겸하고 있음은 주인의 검소함이다. 주인은 비에 젖은 손님을 위해 화롯불을 내놓고 젖은 옷을 말리게 하는데, 문득 붉게 타오르는 화롯불 속에서 候武의 문장을 느낀다. 霽峰만이 느끼는 발상이다. 詩想에 잠겨있는데 문득 소나무 위에서 학 울음소리가 나고 놀라 깨어나 보니 비개인 몇몇 집의 울타리에 저녁 해가 걸려있다.

고경명은 李達, 崔慶昌 등의 三唐詩人과 함께 詩로써 文名을 떨쳐 왔다. 환학당 조여심과는 장기간의 林泉생활 중 학문과 사상적으로 의기가 합일하여 환학정과 甌巖川을 소요하였다. 임진년에 왜란이 일어나자 이에 고재봉이 「馬上檄文」³⁸⁾을 돌리고 의병을 일으켜 금산전투에서 싸웠으나 식솔들과 부자가 함께 순절하였다.

2. 絶勝의 三清洞과 溪山洞 (山居詩)

조여심과 林億齡 간에 환학정과 소쇄원을 오가면서 지은 대다수 시들은 五言律詩다. 그들은 서로를 통래하며 사상과 의식이 많이 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0대부터 莊周에 심취된 석천의 자연관은 환학당의 의식과 맞닿아 도연명의 귀거래와 석만경, 엄자룡의 삶을 지향하게 된다.

석천은 실상 조여심의 삶의 定向과 사상 문학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

37) 李白, 「勸酒歌」, “已文淸比聖 復道濁如賢”

38) 高敬命, 『霽峰集』, 「馬上檄文」. 1592년 6월 중순 高敬命의 의병이 태인을 거쳐 全州에 이르렀을 때 官군이 臨陣江에서 참패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고경명은 6월 24일 각 도의 수령과 백성, 군인들에게 檄文을 보낸다. 이것이 바로 말 위에서 쓴 檄文이라 일컫는 「馬上檄文」이다.

향을 주었으며 조여심의 작품에서 현출되는 ‘儒禪不二’와 ‘自然一如’의 道家思想들이 석천이 지향하는 세계관과 作詩의 분위기와 닮아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당시 조여심은 成守琛의 삶에 영향을 받아 道家의 사상을 견지하고 있었다. 이후 조여심은 石川 말년 10여 년 동안 그의 사상과 문장을 배우면서 삼청동과 溪山의 絶勝을 玩賞하면서 시를 제작하게 된다.

1560년(65세)에 息影亭이 완성됨으로써 溪山風流가 시작되었다. 溪山의 승경 속에서 자연의 이치대로 풍류를 즐기면서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어 平易하고 淡泊한 平淡의 세계를 지향하게 된다. 그의 낭만적 정서는 교태가 불용되는 소박하면서도 自律한 데에 이르는 것이다. 그의 말년에 도달한 平淡의 세계는 마음의 동요나 욕심과 집념이 없으면서도 저절로 諸格을 이룬 자연과의 조화였다. 환학당 조여심은 이 시기에 석천과 교류하면서 그의 삶과 시를 대하게 된다. 이미 만상의 경륜을 갖춘 석천의 삶과 交融 되면서 그의 사상, 문학관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식영정과 환학정을 오가면서 석천은 조여심에게 20수의 산거시를 贈했다. 『石川先生詩集』 卷4에는 「曹上舍山居 五言絶句」 등 총 8수³⁹⁾가 수록되어 있다.

1) 五鬣松의 三清洞 (曹汝諶의 山居詩)

환학당의 오언율의 시풍은 순수하고 가식 없는 守拙한 모습의 표출로 그의 學詩 배경은 成聽松으로부터 기본을 배우고 溪山 詩宗인 석천을 만나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山水元來愛	원래 산수를 사랑하는데
尤憐落小池	낙수하는 작은 연못을 더욱 연모했노라
唾珠灑無數	구슬방울 수없이 뿌리면서
往往濺人衣	이따금 사람의 옷을 적시는구나. ⁴⁰⁾

39) 林億齡, 『石川先生詩集』 卷4, 「曹上舍山居 五言絶句 8首」.

40) 『喚鶴堂遺稿』, 「山居」 1, p.9.

雲霞元隔世 구름과 노을은 원래 세상과 떨어져 있는데
 松竹自成村 송죽은 스스로 마을을 이룬다
 天亦嫌長寂 하늘 또한 긴 적막을 싫어하여
 階前澗水喧 계단 앞 골짜기 물만 소리 내어 흐른다.⁴¹⁾

환학당은 원래 산수를 사랑했는데 특히 앞뜰에 작은 연못으로 낙수하고 있는 모습을 좋아하였다. 석천이 贈한 시에서도 환학정 가에 작은 연못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물들은 수없이 떨어지면서 이따금 사람의 옷을 적시고 있다. 마지막 구의 ‘唾珠’는 “기침과 침조차 모두 구슬이 된다.”는 ‘咳唾成珠’에서 나온 말인데 낙수하면서 반사되는 물방울이 작은 구슬과 같이 보여져 詩語로 쓰고 있는 것이다.

다음 시는 구름 노을처럼 수많은 변화 속에서도 마을에는 소나무와 竹叢이 마을을 감싸 안고 있으며, 계단 앞 개울물이 적막을 깨면서 졸졸 소리 내어 흐르고 있다. 석천이 자연의 소리를 좋아하듯이 조여심의 심상에도 순전한 모습인 연못, 골짜기물이 詩材로 등장되고 있으니 無爲自然이다. 平易하면서 淡泊한 시이다.

野外三人至 들 밖에 세 사람이 이르렀는데
 松間一逕通 소나무 사이에는 작은 길이 나있네
 周詩戒遲暮 시경에는 늙어짐을 경계했는데
 把酒聽秋蟲 술을 붙잡고 가을 벌레소리 듣노라.⁴²⁾

階前玄鶴脛 계단 앞은 검은 학의 정강이요
 巖際赤龍腰 바위 끝은 붉은 용의 허리로다.
 落葉虫猶怨 낙엽은 벌레 울음을 원망하는데
 啾啾奏苦謠 짹짹 소리 내며 괴로운 노래 연주하네.⁴³⁾

41) 『喚鶴堂遺稿』, 「山居」 2, p.9.

42) 『喚鶴堂遺稿』, 「山居」 3, p.9.

43) 『喚鶴堂遺稿』, 「山居」 4, p.9.

들 밖에 세 사람이 작은 길로 가는 초췌한 모습 속에서 문득 세월의 무상함을 느낀다. 「古今賢文」은 “젊은 시절에는 광음을 알보았지만, 늘 그막엔 세월이 아깝기만 하구나[少壯輕年月 遲暮惜光輝]”라고 말하고 있다. 시경은 주나라 때 편찬되었다고 하여 周詩라고 하다가 당나라 때 와서 五經에 포함되면서 詩經으로 불리게 되었다. 시경에는 늙어짐을 경계하여 光陰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였다. 가을별레는 계절의 憂愁와 지나온 세월에 대한 회상을 의미한다. 술잔을 들고 세월의 빠름을 탄하고 있다.

‘玄鶴’은 검은 학, 또는 늙은 학이라고 말하는데 천년이 지나면 청학이 되고 다시 천년 후에는 현학이 된다는 불사조이다. 龍은 산맥의 血을 상징하며 ‘赤龍’은 남쪽 산을 의미한다. 검은 학의 정강이와 붉은 용의 허리가 對를 이루고 있으며, 鶴은 정강이가 龍은 허리가 몸을 지탱해주는 가장 주요한 곳이다. 道家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시이다. 두 詩의 결구에서는 모두 별레 소리와 새 소리를 통하여 시절의 끝자락이 의미하는 인생의 무상성을 나타내고 있다.

胸中珠萬斛	가슴에 있는 만 섬의 구슬을
二紙誰能包	두 종지로 누가 능히 싸 것인가?
散盡山前木	산 앞에 나무들은 흩어져 늘려있고
嗷嗷鬼哭郊	귀곡소리 들녘이 요요하구나. ⁴⁴⁾

위 시는 張籍(765-830)의 「野老歌」를 읽고 2장의 종이 그림에 과중한 구슬을 담을 수 없음을 읊은 시이다. 張籍은 生沒年이 정확하지가 않다.

조여심과 張籍의 삶은 너무 많은 공통점이 있다. 初試를 끝으로 초야에 문헌 조여심의 처지와 進士에 급제한 후 末職을 전전한 장적의 불우함은 많은 공통점을 지닌다. 張籍은 韓愈와 白樂天을 만나 사귀을 가진

44) 『喚鶴堂遺稿』, 「山居」 5, p.9.

대신 조여심의 交遊者들은 林億齡과 高敬命 등이었으며 당시 농촌생활의 疲弊함과 부조리를 읊은 「野老歌」를 보고 그의 심회를 그림 속의 분위기에 대입시켰다.⁴⁵⁾

만 섬이나 되는 구슬은 두 종이에 쌀 수 없다는 인간의 과욕에 대한 경고의 시이다. 가슴에 품을 수 있는 합당한 량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野老歌」는 허기진 백성이 도탄에 있지만 “서강의 상인은 만 섬의 구슬을 가졌는데 배안에 기르는 개는 항상 고기만 먹는다”고 세상의 부조리를 탓하고 있다. 그의 「行狀」은 “일찍이 陶淵明과 石曼卿의 삶을 사랑하여 평생을 狂簡으로 自許하며 항상 嚴子陵으로 自比하였다.”고 하였다.

도연명은 귀거래한 자연주의자이며 석만경은 술을 좋아하여 호방하게 살다간 자이며, 엄자릉은 벼슬과 작위를 버린 隱者였음에 비하여 환학당의 삶 속에는 그들 각각의 편린들을 찾아볼 수가 있다. 산 앞에는 베어낸 나무들이 흩어져 있고 요요한 귀곡소리만이 들린다고 하여 세상의 무질서를 탓하고 있다. 道家的 풍취가 물씬 풍기는 시이다.

山好吟難狀	산을 좋아하나 형상 읊기 어려운데
地涼醉易消	땅이 시원하니 취기 쉬이 가신다.
自今來往數	이제부터 오고감이 많을 진데
沙路敢辭遙	모래 길 멀다하여 감히 사양하리요. ⁴⁶⁾

이 시는 석천과 환학당의 작가가 겹쳐있다. 환학당에서나 식영정에서 지었을 것이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시고 취해 있으나 땅 기운이 서늘하여 취기가 쉽게 가신다고 하였으니 저녁 무렵으로 보인다. 앞으로 자주 오고감이 있을 터인데 비단 모래 길인들 사양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다. 아마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의기가 투합되고 마음이 화창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平易하고 守拙하다.

45) 張籍, 「野老歌」, “老農家貧在山住 耕種山田三四畝 苗疎稅多不得食 輸入官倉化爲土 歲暮鋤犁傍空室 呼兒登山收橡實 西江買客珠萬斛 船中養犬常肉食.”

46) 『喚鶴堂遺稿』, 「山居」 6, p.9.

曾聞一柱觀 일찍이 일주문을 보았다고 들었는데
 山客偶加三 산객 서넛이 짝지어 모여든다.
 洞豁無窓戶 창문도 없이 보이는 광활한 계곡에
 清涼自滿衫 맑고 시원한 기운 옷깃에 가득하다.⁴⁷⁾

서과 吳道一은 환학당이 있는 삼청동 계곡은 매우 맑고 기이하여 신선이 사는 곳이라고 하였다.

남양현[昌平縣] 남쪽 서석산 아래 환학당이 있었는데 上舍[進士] 曹公의 유장지였다. 그 洞을 들어감에 그윽한 계곡과 뽕쪽한 봉오리와 수석이 아름답고 뛰어나 맑고 기이하였다. 그 堂을 오름에 마음이 시원하도록 펼쳐져 있고 상쾌하여 신선이 멀리에 가있지 않는 것 같았으며 (후략)⁴⁸⁾

라고 하였다. 광활한 三清洞 계곡을 지나 절이 있고 이곳에 一柱門이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 일주문은 한 줄로 나란한 두개의 기둥만으로 지붕을 지탱하며 서 있는 건축물이다. 불교에서는 一心이라는 의미로 신성한 사찰에 들어가기 전 흐트러진 마음을 하나로 하여 진리의 세계로 향하도록 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며 一柱門을 중심으로 世間の 俗界와 해탈과 깨달음의 세계인 眞界로 나누어진다는 것이다.

산객 3, 4명이 일주관 방향으로 모여드는 모습이 보이며 정자에는 창문도 없이 맑고 시원한 기운이 스쳐오고 있다.

芝自商山至 지초는 상산에서 이르렀고
 榴從安石來 석류는 안석에서 왔다네
 空心常愛竹 속빈 대나무를 항상 사랑했는데
 同氣更憐梅 같은 기운의 매화를 다시 연민 하노라.⁴⁹⁾

47) 『喚鶴堂遺稿』, 「山居」 7, p.9.

48) 『喚鶴堂遺稿』, 「行狀」(吳道一), “鳴陽縣南, 瑞石山下, 有喚學堂, 古上舍曹公遺庄也. 入其洞, 洞府寬幽, 峯巒秀拔, 水石清奇, 昇其堂, 胸次爽豁, 心懷灑落, 有去神仙不遠, 底意概見公之平生所向也.”

지초는 商山으로부터 왔는데 商山은 심서성 商顯 동쪽에 위치하며, 진의 난리를 피하여 숨었던 東園公, 綺里季, 甬里先生, 夏黃公을 商山四皓라 부른다.

지초는 영지버섯을 말하며 선인들이 찾는 십장생 약초로 선비들의 기호이기도 하였다. 석류는 안석에서 유래했는데, 『博異記』, 『石榴故事』를 보면 당 현종 때 하남성 낙양처사 崔元徽가 封阿이모[風神]와 세소녀[花神]와의 대담 후 피어있는 꽃이 석류였다. 석류는 바람에 강하며 본명은 안石榴였다. 또한 담양에는 본래부터 대나무가 많아 마을 뒤는 竹叢으로 숲을 이루고 있으며, 대나무에서 일어나는 바람소리는 處士들이 좋아하는 천연의 소리이다. 속이 비어 있으나 줄기가 곧아 선비의 지조를 나타내는 사군자 중 하나이다. 환학당은 이러한 대나무를 애지하면서 君子齋를 지닌 매화를 함께 愛憐하고 있는 것이다.

2) 星山 佳景 溪仙洞 (林億齡의 山居詩)

석천시의 분위기는 批判的이며 浪漫的이다. 스승인 訥齋 朴祥의 시에 7언 절구나 7언 율시가 많은 반면 石川詩는 주로 5언의 절구 형식이며 그 시상이 動的이라기보다 靜的이며 갈등 해소로 歸去來를 동경하거나 술을 통해 해소하려고 하였는데 낭만적 기질 탓이다.

石川の 詩學이 어떤 것이었나를 밝혀내는 것은 여러 評者들의 견해가 필요한데 대체로 단편적이며 그와 교분이 있었던 인물들의 인상 批評이 대부분이다. 여러 詩評者들 중 沈守慶은 ‘俊逸清新’으로, 남용익은 ‘飛動’으로, 許筠은 ‘高邁’ 또는 ‘壯麗’로, 李仲悅은 ‘文詞雄放’으로 評하였음을 본다. 이러한 詩評을 볼 때 그의 시는 당시 진지한 觀察에서 발견된 심각한 問題, 矛盾, 不調和 등을 浪漫的으로 처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49) 『喚鶴堂遺稿』, 「山居」 8, p.10.

誤入三清洞 잘못 들어 삼청동에 오니
 蒼然五鬣松 창연한 다섯 갈기 소나무가 있네
 香醪如石髓 향기로운 막걸리는 석수와 같은데
 一酌面復童 한잔을 마시니 아이 얼굴이 되는구나.⁵⁰⁾

위 시는 석천 임억령이 조여심의 정자인 삼청동 계곡에 들어 풍광을 찬미한 喚鶴亭 八絶이다[山居 泉聲]. 석천이 환학당의 삼청동 계곡에 들어 널따랗게 펼쳐진 계곡에 五鬣松 우거짐을 보고 그 풍광에 취해있다. 五鬣松은 잎이 다섯 갈래인 잣소나무로 말의 목덜미에서 등까지 나는 긴 털과 같이 생겼는데 삼청동 계곡의 명물이었다. 손을 맞아 원하는 몇 잔의 막걸리는 취기가 일고 어린아이 얼굴이 되면서 두 사람 간에는 화창한 교류가 시작된다. 교묘와 기교를 부리지 않는 守拙하며 낭만적 수법으로 처리한 대표 작품이다. 『석천집』은 結句의 ‘復’을 ‘還’으로 표기하고 있다.

在世嫌今樂 사는 동안 세속의 낙이 싫어
 來山聽至音 산 찾아와 친한 벗 소리를 들노라
 深思傳古瑟 옛날 비파의 전해짐을 깊이 생각하는데
 往和有虞琴 찾아오니 우의 거문고로 화답하네.⁵¹⁾

위 시는 환학정에서 聽知音 하는 석천의 소회가 보인 詩이다. 오랜 宦路에서 溪山에 귀의한 석천은 숙박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평온과 안락을 찾고자 하여 환학정에서 벗의 소리를 청하고 있다. 古瑟은 孔子 제례의 식 악기로 쓰이고 있으며 『三國史記』, 『高麗史』, 『世宗實錄』 등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다. 당나라 때는 4줄의 唐琵琶가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신라시대에 5줄의 향비파가 있었다. 12세기 후반 제작된 것으로 확인된 古瑟인 만오언이 현존한 가장 오래된 악기다. 그러나 비파의 성률이 조

50) 『喚鶴堂遺稿』, 「泉聲」, p.4.

51) 『喚鶴堂遺稿』, p.4.

선조에는 전해지지 않고 弦琴[거문고]이 대신하게 된다. 虞琴은 한나라 때 만든 악기로 『帝王世紀』에 보면 舜이 오현금을 탔으며, 『孔子家語』, 「辨樂解」에서는 “남풍의 훈연함이며 백성들의 걱정을 풀어주는구나”⁵²⁾라고 우금의 소리를讚하였다. 석천은 환학당으로부터 우금에서 올려오는 남풍과 같은 소리를 통하여 평강을 찾고자 한 것이다.

青松同客瘦 푸른 소나무는 객과 같이 파리하고
碧水與天虛 파란 물은 하늘처럼 비어있네
何處秋懷寫 어느 곳 가을 회포를 옮겨와
時時削樹書 때때로 나무껍질 벗기어 글을 적을고.⁵³⁾

鄭誦는 「東來雜詩」에서 “술이 거나하자 난데없는 흥 일어 나무껍질 벗기고 번갈아 시를 쓰네”⁵⁴⁾라고 “흥이 발할 때는 종이가 필요 없이 나무껍질을 벗겨 글을 적노라”하고 있다. 종이가 없을 시기에는 平木이나 대나무에 글을 적을 수밖에 없었고 漢 이전에는 竹簡이 종이를 대신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종이에 쓰는 것이 상식임에도 석천은 정포와 같이 어느 때 흥취가 일어나 나무껍질에 글 쓰는 때가 있을 수 있을까 하고 반문하고 있다. 또 당나라 寒山子는 숲속의 바위와 마을 인가의 벽에 시를 적어 314수를 남겼는데 모든 시들이 자연 속에 써 놓았던 것들의 취합이다. 이와 같이 석천도 純全한 자연의 모습 속에 담겨져 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된다. 석천의 낭만성이다.

昨夜前溪漲 어제 밤에 앞개울 넘쳐나고
無人叩石門 인적 없는데 돌문을 두드린다
山翁來勤酒 산 늙은이를 찾아와 술 권하는데
衣上留雨痕 옷 위에 비 젖은 흔적이 남아있구나⁵⁵⁾

52) 『帝王世紀』, “虞琴漢築 曰：舜彈五弦琴，歌南風詩曰：“南風之薰兮，可以解吾民之愠兮”

53) 『喚鶴堂遺稿』, p.11.

54) 鄭誦, 『東文選』 卷9, 「東來雜詩」, “酒闌還有興 削樹遍題詩”

위 시는 昨夜에 많은 비가 걱정이 되어 술을 들고 석천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는 환학당에 대한 석천의 감사 시이다. 위 시를 통하여 환학당의 석천에 대한 각별한 정성을 엿볼 수 있다. 당시 식영정과 환학정 사이는 얇은 개울이 있었다. 지난 밤 많은 비가 내려 석천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술을 들고 찾아온 정성이 참으로 정겹다. 아직도 그치지 않은 비를 맞아 옷이 젖어있음을 보고 안부를 챙기는 자상함을 고마워하고 있다. 석천 말년의 시들은 淡泊하며 平易하다. 환학당의 情과 석천의 誠이 交融되면서 잔잔한 감동을 준다.

野店炊烟白	들점에는 밥 짓는 연기가 희고
山村晚稻黃	산촌 들녘엔 늦 벼가 노랗구나
今年幸無事	올해에도 다행히 번고 없나니
謀醉亦何妨	약간 취한들 어찌 해로우랴. ⁵⁶⁾

唾落池魚聚	침을 뱉으니 연못의 물고기가 모여들고
詩成谷鳥賡	시가 이루어지니 골짜기 새가 화답한다.
淹留爲待月	달을 기다리며 머물러 있노라니
天意徇教明	하늘도 이 뜻을 알고 밝혀 준다. ⁵⁷⁾

들 점에 밥 짓는 연기와 벼가 익어가는 풍경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다. 평화스러운 세태에서 마음 놓고 취해보고 싶은 소박한 마음을 담아 내고 있다.

아래 시에서는 자연 속에서 자유로운 삶의 모습을 “詩成谷鳥賡”이라 표현했다. 달이 없는 밤에 달을 기다리는 소박한 모습에서 淡泊이 느껴

55) 林億齡, 『石川先生詩集』, 「謝曹上舍汝謙 持酒來訪」.; 『喚鶴堂遺稿』, 「石川詩山居」, p.12.

56) 林億齡, 『石川先生詩集』 卷4, 「曹上舍山居 五言絕句」, p.11.

57) 林億齡, 『石川先生詩集』 卷4, 「曹上舍山居 五言絕句」. (『喚鶴堂遺稿』, 「喚鶴亭 揭額」 1, p.15.에는 宋俛仰으로 되어 있음.)

진다. 무엇인가 부족한 듯하며 느껴지는 단순성이다.⁵⁸⁾

灑筆從衣黑 붓을 뿌려 검은 옷을 만들고
 盃盃遺面春 잔을 마시니 봄기운이 돈다
 滿山明月裏 만산에 밝은 달빛 휘저으니
 誰識謫仙人 누가 귀양 온 신선을 알 수 있으랴.⁵⁹⁾

위 시를 지을 때에는 어느 보름 즈음인데 환학당과 먹을 갈고 묵담을 나누는 중 먹물이 옷에 묻어 검게 물들여 있다. 文谷 金壽恒은 석천의 「行蹟紀略」에서 “석천은 시에 뛰어나시어 붓을 잡으면 일필휘지로 써 내시니 한때의 사람들이 다투어 암송하였다”⁶⁰⁾고 하여 석천이 시인이며 近墨者임을 밝히고 있다. 먹물이 묻은 검은 옷을 입고 詩客이요 墨客이 되어 잔을 마시니 화창한 봄기운이 돌아온다. 마침 만산에 달이 밝게 떠올라 휘저어 대니 앞에 있는 귀양 온 신선을 알지 못한다고 조여심에 대한 최고의 찬사를 하고 있다. 『華嚴經』, 「大乘入楞伽經」의 “뚝대 걸어 맑은 바람 부는 대로 밝은 달빛 휘저으니, 내 몸이 수정궁에 든 줄조차 모르노라[一棹淸風明月裏 不知身在水晶宮]”에서 취한듯하다. 이미 儒禪不二의 경지에 이른 두 사람 간에는 적의한 표현으로 보인다.

3. 共賦 甌巖川

다음 詩는 縣令 鄭祥叟와 金剛叔(서하당 김성원)外 十數人 등이 桐江釣臺에서 읊었던 共賦 중 조여심과 고경명의 시이다. 高在珖의 「桐江釣臺移築紀績碑」⁶¹⁾와 후손 曹圭福의 「桐江釣臺移建顛末記」⁶²⁾를 보면 祈陽

58) 최진원, 『國文學과 自然』,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6, p.107.

59) 『喚鶴堂遺稿』, 「石川詩 山居」, p.15.

60) 金壽恒, 『石川集』, 「行蹟紀略」, p.302, “先生文章宏放俊逸尤長於詩揮灑立就一時人爭傳誦.”

61) 『昌寧曹氏 密直使公派譜』, 「桐江釣臺移築紀績碑」(高在珖 國會副議長), 1977. 3.

62) 『昌寧曹氏 密直使公派譜』, 「桐江釣臺移建顛末記」(曹圭福 記), “本 縣令 鄭祥

(창평의 고명)의 甌巖은 우리나라 명승 중의 하나로서 이 釣臺 위에서 선조 재봉[고경명]선생과 당시 현령 鄭祥叟 梁鼓巖[양자징], 조환학당[조여심]과 더불어 시를 읊으면서 활동하던 유서 깊은 곳이라 하였다. 雲南 李承晩 대통령도 ‘遺風餘韻’이라 題한 곳이다.

七里灘聲轉	甌巖川 칠 리에 여울소리 굴러오니
一團風味高	일단의 풍류 화창하도다
停車芳草路	방초 피어난 길에 수레 멈추고
繫馬碧松皋	푸른 소나무 언덕에 말을 매노라
晴景明如畫	맑은 경치는 그림 같이 밝고
流霞世滴醪	흐르는 노을은 막걸리 방울과 같네
江干今日事	흐르는 강줄기는 오늘의 일을
千載說吾曹	천세동안 무리에게 말해주겠지. ⁶³⁾

起聯은 칠 리에 뻗어있는 증암천의 여울소리가 굴러 오는 곳에 여러 인사들의 화창한 날 모임임을 예고하고 있다. 頡聯은 길가 방초 피어있는 곳에 수레를 멈추고, 소나무에 말을 매고 있음을 볼 때 지방 수령 등이 참여한 큰 모임임을 알 수 있다. 頸聯에서는 그림같이 맑은 증암천 위로 흐르는 저녁노을이 막걸리 방울로 보인다. 유유히 흐르는 이 강물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일을 천세동안 말해주리라고 끝맺음 한다. 증암천 물소리로 시상을 열고 수레와 말을 매어 모임의 성격을 알리고 그림같이 맑은 석양의 풍광을 찬사하여 시상을 전개한 후 이제 진정된 마음으로 강물이 오늘의 마음을 담아 천세토록 유유히 흘러가리라고 마무리하고 있다. 증암천의 풍정을 한 폭의 그림으로 담아 내는 듯한 유려한 표현이다. 환학당은 이 시에서도 순수한 자연관에 충실한 대신 대다수 오언절구에서 느껴지는 平淡과 守拙함을 벗어나 문장에 힘과 雄肆한 기백

叟與霽峰 高敬命 捷霞堂 金剛叔 叔祖 喚鶴堂公 遊詠于此江之上而有 詩繼而 鼓岩梁子澂 孤直堂 朴英喆 數竹 曹弘立 …”

63) 『喚鶴堂遺稿』, 『喚鶴亭 揭額』, p.14, ‘附題’, “昌平 縣令 鄭祥叟 邀飲甌巖溪邊 與剛叔同賦”

을 느껴지게 하였다.

다음은 재봉 고경명의 시다.

興逸軒眉久	흥이 일어 오래도록 눈썹을 펴고
心忙舉趾高	가슴이 두근거리 발걸음이 높노라
廚煙生遠渚	부엌 연기 멀리 물가에서 피어나고
候騎散平臯	척후의 말굽소리는 평만한 언덕으로 흩어진다
晚飯炊香稻	늦은 저녁밥은 불 지핀 벼의 향기이며
新筍潑綠醪	새로운 용추로 연푸른 막걸리를 걸러낸다
遺形同一醉	형체를 남기고 모두 함께 취하니
沙鳥與爲曹	모래 위 새들도 무리와 함께하네. ⁶⁴⁾

증암천에서 여러 명사와 함께 초대되어 시를 읊은 것은 霽峰에게는 크나큰 자부심이었고 즐거움이었으리라 생각된다. 여기에 서하당 김성원을 비롯하여 조환학당 등 여러 명사들과 자리를 같이하는 곳이었으므로 그의 詩才가 빛을 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였다.

起聯에서는 흥취가 일어나 가슴이 뛰며 발걸음을 높이 재촉하고 있다. 頤聯은 멀리 강 너머에 부엌연기 피어나며 지방수령을 호위한 후 돌아가는 斥候의 말굽소리가 언덕너머로 흩어지고 있다. 頸聯은 벼 향기 나는 저녁밥과 연푸른 막걸리가 저녁 만찬을 위해 걸러지고 있다. 尾聯은 이제 흥이 고조되어 모두 취하니 모래 위 새들까지 무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재봉의 豪放함이 엿보이는 시이다.

4. 儒禪不二와 自然一如

다음은 奇大升(1527-1572)이 환학당에게 贈한 山行詩 1편과 五言 2편이다.

64) 高敬命, 『霽峰集』 卷4, 「昌平 縣令 鄭祥叟 邀飲飯巖溪邊 與剛叔同賦」, p.86.; 『喚鶴堂遺稿』, p.14.

遊遍僧廬搆勝情	伽藍을 두루 다녀 좋은 정 쌓았는데
若師卷子境尤清	약사와 권자는 경지가 더욱 맑네
巖楓有待留秋雨	바위 단풍 기다림 있어 가을비에 머무르고
石霽無從作雨聲	돌에 낙수하니 저절로 빗소리 짓는다
馴鶴眠羊俱異跡	길들인 학 조는 양 모두 기이한 자취요
古臺荒磴尙佳名	옛 누대 목은 등은 오히려 좋은 이름이로다
欲償累劫吟連在	누겁에 못 갚은 시채(詩債)를 보상코자
倚榻猶聞夕梵鳴	의자에 기대어 저녁 범패 소리 듣누나. ⁶⁵⁾

高峰은 그의 스승인 石川과 知人을 통하여 조여심의 偉人과 聲名을 알아 늦가을 저녁 환학정에 들러 조여심의 맑고 고결한 경륜과 若師⁶⁶⁾라는 시어를 통해 조여심의 불교에 대한 심오하고 해박함을 확인하고 있다. 頷聯은 가을비가 돌에 낙수하는데 바위에 있는 나무의 단풍은 떨어지지 않고 있어 晩秋의 풍정이다.

‘卷子’의 시어는 고봉의 학통인 정몽주의 시 「浩然卷子」⁶⁷⁾에서 취한 듯하다. 굳건한 마음가짐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기백이 살아 있는 호연지기를 온전하게 해서 천고에 변하지 않을 충절을 간직한다는 뜻이다. 頸聯에는 길들여진 학과 즐고 있는 양을 靜과 動의 모습으로 대비시키고 있어 이채롭다. ‘喚鶴’은 정자의 주인인 조여심이 학을 부르고 길들여

65) 奇大升, 『高峰集』 卷1, 「曹上舍 寄喚鶴亭」.; 『喚鶴堂遺稿』, 「喚鶴亭 揭額」 1.

66) 고봉의 시어인 ‘若師’는 불교사전이나 기타 전적에서 뜻을 확인할 수가 없다. 전체 문맥으로 볼 때 ‘藥師如來’에서 취하여 쓰고 있는 듯하다. 藥師의 칭호를 藥師瑠璃光如來·大醫王佛이라고도 한다. (이종익, 『佛教思想』 3, ‘藥師如來’, 1984. 참조)

이 詩 起聯의 ‘遊遍僧廬’나 尾聯의 ‘累劫’, ‘吟連在’, ‘夕梵鳴’의 시어를 볼 때 환학당의 불교에 대한 경지를 보고 若師라고 칭한 듯하다. 並稱의 의미가 있거나 藥師의 혼동에서 쓰인 듯하다. 西坡 吳道一의 시 「藥師菴」의 2구에 는 ‘藥師菴子境尤清’으로 되어있다.

67) 鄭夢周, 『圃隱集』, 「浩然卷子」, “皇天降生民 厥氣大且剛 夫人自不察 乃寓於尋常 養之固有道 浩然誰敢當.”

이로 인해 自號한 것인데 인도의 鶴能羅尊者는 나들이할 때 못 학이 그를 따라 다녔다고 한다.

환학당과는 누집 동안 수많은 시를 교환할 수 있었음에도 아마도 미처 건네주지 못한 시의 빛이 자기에게 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표하면서 고봉은 환학당에게 다시 2수의 시를 준다.⁶⁸⁾ 저녁비가 내리는 오래된 누대를 바라보면서 의자에 기대어 저녁 범패소리를 듣고 있다. 시의 전개양상이 유연하면서도 詩趣가 심오하다. 후세에 회자되는 고봉의 걸작 시다.

5. 共遊 光風亭

招提多少此樓奇	초재에는 빼어난 누각이 많기도 한데
落日長郊縱眺宜	해 저문 넓은 들녘이 縱으로 펼쳐져 있네
鴈外蒼茫山瑞石	기러기 산 너머로 서석산이 아득하고
雲頭孤絕寺蘇池	몽게구름 홀로 떠있는 곳 소지사로다.
巖楓留染寒應淺	바위 단풍 곱게 물들이고 찬 기운 얇게 응답하니
洞霧收痕月不遲	마을 안개 자취를 감추고 뜨는 달 더디지 않네
却恐春風花發後	봄바람은 찬 기운 물리쳐 꽃을 피우게 하고
漁舟重到路堪疑	고깃배 거듭 이르는데 뱃길은 알길 없구나. ⁶⁹⁾

작품의 시상 전개가 매우 유연하며 광풍정에서 바라보는 서석산(無等山)과 멀리 강가에서 고깃배가 넘나드는 풍광을 정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보기 드문 걸작이다.

起聯에서는 招提로부터 멀리 동으로 이어져 있는 저녁 들녘이 묘사되면서 시상을 열고 있다. 招提는 관부에서 賜額한 절인데 여러 누각들로 형성되어있다. 額聯에서는 기러기 나는 서석산 너머에 소지사가 보이며,

68) 『喚鶴堂遺稿』, p.12, “放馬松間草 依倚期杳然 小童喜不得 困枕石頭眠.”; “地靈蛇遠避 松老鶴來棲 引水循階走 踈籬芋葉齊.”

69) 吳道一, 『西坡集』 卷8, 「大兜率僧樓口占」, p.170. (『喚鶴堂遺稿』, p.14.에는 宋純의 「共遊光風亭」으로 되어 있음.)

頸聯에는 바위단풍이 곱게 물들인 곳에 안개 걷히고 서서히 달이 떠오르고 있다. 尾聯에서는 뱃길을 알 수 없는 고깃배가 거둑 오가고 있는 모습으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한 폭의 원근법을 잘 지켜 그린 산수화를 보는 것과 같은 감흥을 주고 있다.

위 시는 『환학당유고』와 ‘환학정 현관 揭額’에도 송순의 「共遊光風亭」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이 오도일의 『西坡集』에서 확인되고 있어 작가의 진위가 혼란스럽다. 당시 환학당과 송순과의 교유는 여러 문헌에서 확인되고 있거니와 다만 송순의 문집에는 위 시가 발견되지 않아 서파의 작품을 전제로 하였다.

IV. 曹汝諶의 詩的傾向과 特徵

조여심의 시의 성향, 특성은 그의 시문이 너무 疏略하여 입체적 분석은 다소 난망하다. 조여심 시의 궤적은 스승 성수침과 임억령으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써 임억령의 學詩 배경이 莊子の 『南華經』과 도연명의 「歸去來」에 있음을 볼 때 조여심의 삶 또한 스스로 狂簡을 자처하고 엄자릉과 도원양의 위인을 사모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그의 사상은 ‘儒禪不二’와 ‘自然一如’의 道家사상을 수용하게 되어 그의 시에서 佛家적 흔적과 道家의 자취를 느끼게 되며,平生 동안 三清洞 풍류 속에서 平易하고 淡泊한 시세계를 구사하면서 일시 명류와 吟哢自適하였다.⁷⁰⁾

그는 탈 유가적 성향으로 도가적 취향을 견지하여 당시 ‘載道之氣’ 또는 ‘以道爲文’의 문예사조에 대항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환학당의 山居詩 전반에서 ‘無爲自然’의 도가적 정취를 확인할 수 있고 奇大升이 贈한 山行詩 「寄喚鶴堂」에서 ‘약사·권자’라는 詩語와 환학당 原韻에서도 ‘釋去千年只白雲’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불교와의 인연을 엿볼 수가 있다.

70) 『喚鶴堂遺稿』, 「喚鶴堂遺稿序」(奇宇萬).

다만 그의 「行狀」을 통하여 유추되는 삶의 志向이 도연명, 석만경, 엄자룡 등을 추종하였으며, 작품 전반에 흐르는 시의 성향은 守拙하고平易하며 과장하지 않는 자연주의적 특징이 있다. 그의 율시에서는 禪 사상과 道家의 여운이 감지되며 그의 山居詩 전반에서 느껴지는 것은 현실세계가 그의 포부를 수용해주지 못하는 屈原의 비애를 느낄 수 있고, 이를 엄자룡과 석만경과 같은 隱者的 삶과 도가사상에 기대어 독자적으로 아픔을 극복하려했다고 볼 수 있다. 이리하여 그는 도연명의 귀거래를 자연과 조화시켜 그 속에 동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석천이 조여심과 달밤에 먹물 묻은 옷을 입고 술에 취하여 귀양 온 神仙[謫仙]이라 평하고 서파 오도일이 “色澤이 朗潤하여 근세 작가가 비길 바가 못 된다”는 시평을 한 것은 환학당의 詩才가 결코 범상치 않음을 알 수 있다. 谿谷 張維가 李睟光의 시평을 하면서 “그는 시를 지을 때 반드시 唐의 모든 名家로서 법했다. 그러므로 그 소리의 조화가 잘 이루어졌고 色澤이 朗潤하다.[其爲詩 必以唐諸名家爲法則 故其聲調諧協 色澤朗潤]”⁷¹⁾고 하였는데 환학당에 대한 서파의 詩評과 같다. 이로 미루어 환학당의 시는 “唐의 제가를 法으로 삼고 잘 조화를 이루고 있어 밝고 맑은 기운이 감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러 풍진 속에 진적이 소멸되고 분량이 소략하여 그의 시 전체에 대한 성향분석에 한계가 있음이 아쉽다.

V. 結論

본 연구의 중점은 ① 조여심의 出系와 사상, 시대적 배경을 살피고 ② 담양권의 누정 및 그가 짓고 활동했던 喚鶴亭, 翫水亭에서의 활동상 ③ 그의 업적인 ‘三峰書舍’의 증건 및 講學 ④ 本論으로 그의 문집과 교류 시인들의 시세계와 특히 詩緣이 깊은 임억령과 지근에서 교류했던 산거시

71) 張維, 『谿谷集』(『韓國文集叢刊』 92.) 卷7, 「芝峰集序」, p.121.

를 중심으로 두 사람 간의 시의 특성과 내면세계를 고구하여 보았다.

그동안 환학당 조여심의 연구가 方外 작가에 머물고 제외되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자료가 疏略하고 분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500년 가까운 작금에까지 주위에 회자되어 온 그의 명성에 비해 그에 대한 文蹟 정비가 되어있지 못한 것은 참으로 가석한 일이다. 이는 後學으로써 누군가는 해야 했던 시대적 소명이고 당위였기에 여러 難題가 있었지만 분산된 자료들을 취합하여 나름의 연구결과를 내놓게 되었다.

앞으로의 과제는 지근에 있었던 星山歌壇 중심 인물들의 문학세계를 심도 있게 추적한다면 환학당 문학이 만들어진 배경과, 주 활동 공간인 樓亭文化에 대한 이해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당 연구를 통하여 당시 交遊作家들을 견인, 심도 있게 접근하여 아직 미 발굴되거나 묻혀 있는 환학당 관련 자료를 찾아내야 하는 과제가 있으며, 당시 時流에 따라 林泉에 묻혀 있었던 우수한 처사 方外 작가를 발굴해 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參考 文獻>

- 曹汝諶, 『喚鶴堂遺稿』, 夫盛印刷社.
 ——, 『昌寧曹氏 密直使公派譜』, 竹林齋, 2008.
 高敬命, 『霽峯集』, 『韓國文集總刊』 42, 民族文化推進會, 1617.
 孔 子, 『論語集註』, 전통문화연구회, 1990.
 奇大升, 『高峰集』, 『韓國文集總刊』 40, 民族文化推進會, 1989.
 金麟厚, 『河西集』, 京仁文化社, 1987.
 潭陽鄉校, 『潭陽 鄉校誌』, 湖南文化社, 1963.
 孟 子, 『孟子集註』, 전통문화연구회.
 徐居正, 『東文選』,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1478.
 成守琛, 『聽松集』, 『韓國文集總刊』 26, 民族文化推進會, 1806.
 蘇世讓, 『陽谷集』,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4권 2책, 1762.

- 宋 純, 『俛仰集』,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4권 2책, 1829.
- 吳道一, 『西波集』,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30권 15책, 1729.
- 李白, 『李白詩選』, 현암사, 2013.
- 林億齡, 『石川集』,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5권 5책, 1570.
- 一 然, 『三國遺事』.
- 張 維, 『谿谷集』, 『韓國文集叢刊』 92, 民族文化推進會.
- 鄭夢周, 『圃隱集』,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1439.
- 鄭 澈, 『松江集』,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11권 7책, 1894.
- 昌平鄉校, 『昌平 鄉校誌』, 昌平鄉校, 1998.
- 許 筠, 『許筠全書』, 成均館大 大東文化研究院, 1972.
- , 『惺所覆瓿藁』,
- 洪萬宗, 『詩話叢林』, 『洪萬宗全集』, 太學社, 1980.
- 皇甫謐, 『帝王世紀輯佚』, 2007.
- 이종익, 『佛敎思想』 3호, 1984.
- 임형택, 『韓國文學史의 視覺』, 창작과 비평사, 1984.
- 曺喜昌, 「蘇齋 盧守愼의 詩文學」, 『漢文古典研究』 第16集, 한국한문고전학회, 2008.
- 최진원, 『國文學과 自然』,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6.
- 崔漢善, 「石川 林億齡 詩文學研究」,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Abstract

*A study on poetry friendship of Hwan-Hak-Dang Cho Yeo-sim**
/ Cho Hea Chang**

Cho Yeo-sim(曹汝謙), who was the great Confucian scholar and poet, with the pen name called Hwan-Hak-Dang was born in the year of 1518, when is in the 13th year of King Jung-Jong(the year of Moon-In), and was died in 1594 at the age of 77, when is in the 27th year of King Sun-Jo(the year of Gab-O). His writing style was Sang-Jung or Sung-Jun and his pen name was titled for him self. He is atypical scholar like a crane. Having made friends with them as a poetical friend and kept the classical scholar mind and lived righteously, while having lived in the same age as Song Sun, Lim Uk-ryung and others in the Honam world of poetry, he was not highlighted yet to the world. Do-Il Oh with the pen name of Soe Pa, who wrote 'Haeng Jang', commented "Nobody in the recent ages can be beyond his rhythm transparent and integral and color bright and shiny." It is regrettable there is no information on the literature or valuable material although every poet in Hwan-Hak-Jung, which is a pavilion, admired his prominence and he was called a legend as a traditional scholar like a crane.

In the meantime, it turned out many of his literary work were burned down together with many other historic literatures of his ancestors. It is fortunate to be able to disclose his excellent reputation to the world since some frames of Hwan-Hak-Jung and scattered posthumous writings collected by his descendants were recreated as a posthumous work named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NRF-2014S1A5B5A07038864)

** Sungshin Women's Univ. / hichang47@hanmail.net

‘Hwan-Hak-Dang’ and some parts of his work were described in the materials from Lim Uk-ryung, So Se-yang, Ko Kyung-myung, Ki Dae-seung and Jung Chul, and also some other parts of his work remained in the Confucian called Chang Pyung.

Cho Yeo-sim made substantial communications with Song Sun[侁仰亭], Ko Kyung-myung[霽峰], Ki Dae-seung[高峯], Jung Chul[松江] in the center of Hwan Hak Jung and made a special friendship with Cho Yeo-choong[KwanSu-Jung, elder cousin] and his younger cousin, So Se-yang [陽谷] loved his work with a special interest. He also made a special relationship with Lim Uk-ryung[石川] from ‘Sik-Young-Jung’ located nearby and digested his thought and literature. That is why Cho Yeo-sim’s poetical style is similar to that of poet Suk Chun(Nyun Man), who granted as many as about 20 poetry to Cho. Some original poetry including ‘Won Woon’ poetry in his anthology named ‘Hwan Hak Dang’ posthumous work and some other additional poetry were used in this analysis work.

In addition, the impact of his accomplishments on the education through Sam Bong Seo Sa(Hak Goo Dang) he established and the functions as a provincial private institute and its people were also examined.

It is believed and expected that this study is the excellent chance to rethink of his world of literature works and the relationship among his social poets by reviewing Cho Yeo-sim, who remained as an outside poet in the Ho Nam province in the 16th Century

【Key words】 Hwan-Hak-Dang[喚鶴堂], Song Sun[侁仰亭], Ko Kyung-myung [霽峰], Lim Uk-ryung[石川], Ki Dae-seung[高峯], So Se-yang[陽谷], Hak-Goo-Dang[學求堂].

투고일 : 4월 20일, 심사일 : 5월 21일, 게재확정일 : 6월 8일